

# 건설동향브리핑

## 제501호 (2015. 3. 9)

### ■ 정책 · 이슈

- 2015년 상반기 표준시장단가 분석
- 건설기업 혁신 활동의 내 · 외부 환경과 시사점

### ■ 경영 · 정보

- 2014년 글로벌 비즈니스 부패 인식 동향

### ■ 경제 동향

- 2월 CBI, 전월 대비 7.7p 상승한 83.5

### ■ 연구원 소식

- 건설 논단 : 담합과 말죽거리 잔혹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 2015년 상반기 표준시장단가 분석

- 명칭 및 체계 변경 후 첫 발표, 여전히 표준품셈 대비 85.39% 수준 -

### ■ 주요 단가 우선 현실화가 핵심

- 공공 부문 표준시장단가 개선 방안이 2014년 민·관 합동 TF 논의 및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국가 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됨(2015.1.22).
  - 표준시장단가 시행, 300억원 미만 한시적 적용 배제, 참여형 운영 방식 구축, 보정 기준 마련, 주요 단가 우선 현실화 등
- 금년도 상반기 표준시장단가는 기존 실적공사비가 지나치게 낮은 83개 항목(토목 50개 항목, 건축 33개 항목)에 대해 시장거래가격을 조사 및 반영하여 현실화한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음.
  - 나머지는 6개월 간 물가상승분을 보정하여 표준시장단가를 산출, 총 1,968개 항목 전체에 대한 표준시장단가를 공고

### ■ 총 577개 항목에 시장거래가격 반영

- 전문가협의회<sup>1)</sup>를 구성하여 우선 현실화 대상 83개 항목 중 6개 항목을 제외한 77개 항목 및 연관 67개 항목, 합성단가 433개 항목 등 총 577개 항목에 시장거래가격 반영
  - 시장거래가격은 2014년에 발주된 300억원 이상 공공건설공사 67건의 시공업체를 대상으로 실제 집행한 단가를 조사(2015년 1.26~2.6)
  - 연관항목은 ‘기계터파기’ 단가 상승에 따라 ‘기계+인력 터파기’ 단가도 현실화
  - 합성단가는 ‘거푸집’, ‘콘크리트 타설’ 단가를 적용하여 집수정 개소당 단가, 도수로 m당 단가, 콘크리트박스 m당 단가 등을 합성하여 산출
  - 단가 현실화 대상인 577개 항목에는 거푸집, 흙쌓기, 포장 등 사용 빈도가 높고 비중이 큰 주요 단가가 포함됨.
- 1,391개 항목은 6개월 물가상승분(토목공사비지수 0.37%, 건축공사비지수 0.72%) 반영

1) 전문가협의회는 발주청과 업계 원가팀이 함께 참여하여 시공 상황 및 현장 여건 등을 감안하여 조사 결과의 적정성 검증

■ 1,968개 항목, 평균 4.71%(물가상승분 제외시 4.18%) 상승

- 공사비 총액 기준으로는 약 0.92%(물가상승분 제외시 0.82%)의 상승 효과

<2015년 상반기 표준시장단가 변화 요약>

구분	항목 수	물가 상승 포함		물가 상승 제외	
		단가 상승(평균)	총액 상승 효과	단가 상승(평균)	총액 상승 효과
1,968개 항목 종합					
종합	1,968	4.71%	0.92%	4.18%	0.82%
토목	1,083	7.50%	0.48%	7.13%	0.44%
건축	510	1.73%	0.43%	1.01%	0.38%
설비	375	0.72%	0.01%	-	-
우선 현실화된 577개 항목					
종합	577	14.66%	0.84%	14.27%	0.82%
토목	347	14.48%	0.45%	14.11%	0.44%
건축	30	17.84%	0.39%	17.12%	0.38%

- 주요 단가 현실화 대상인 577개 항목의 경우 2014년 하반기 실적단가 대비 평균 14.66% 상승(물가상승분 제외시 14.27%)
  - 공사비 총액 기준으로 약 0.84%, 물가상승분을 제외하면 약 0.82%가 상승할 것으로 추정
  - 주요 공종 중 거푸집은 25%, 포장은 23%, 도배는 27% 상승

<주요 단가 상승률>

공종명		2014년 하반기	2015년 상반기	상승률
토목	거푸집(보통마감)	19,469원	24,336원	25%
	흙쌓기(토사)	1,137원	1,333원	17%
	포장(보조기층 포설)	3,111원	3,831원	23%
건축	거푸집(보통 마감)	20,630원	24,899원	21%
	도배(초배지無, 공동주택)	3,295원	4,195원	27%

- 산재보험요율, 기타경비율은 조달청 요율 등락률에 따라 조정할 예정

■ 큰 폭 상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표준품셈 대비 85.39% 수준

- 표준시장단가가 표준품셈보다 낮아야 한다는 기존 인식 변화도 기대하며, 향후 표준시장단가의 조정에서 표준품셈이 절대적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으로 판단

최석인(연구위원 · sichoi@cerik.re.kr)

## 건설기업 혁신 활동의 내·외부 환경과 시사점

- 건설기업 혁신은 시장 특성상 필수적,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동참 필요 -

### ■ 건설기업 혁신 활동의 필요성

- 지난해 건설 수주가 민간 부문 성장에 힘입어 다소 증가하였으나, 2007년 이후 건설시장의 규모는 외형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음. 이에 따라 매출액 및 자산 증가율이 2013년에는 2%대까지 낮아졌음.
  - 특히, 중장기적인 경영 안정성에 영향을 주는 보유 유형자산 중에서도 토지, 건물 및 구축물, 건설용장비 등의 비중이 낮아지고 있어 건설기업의 외형 축소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 또한, 건설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생산성은 향상되지 않는 상황에서 생산원가는 계속 상승하여 이윤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 건설기업의 매출원가율도 계속 상승하여 2013년에는 90.5%를 나타냄에 따라 건설기업의 수익 대비 지출비율은 2013년 100.7로 지출이 더 확대되고 있음. 이에 따라 영업이익률은 1%대로 축소되었으며, 순이익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음.
- 생산성본부 자료에 의하면, 건설기업의 노동생산성은 주요 선진국 대비 30% 수준이며, 부가가치생산성은 2011년 이후 급속히 축소되고 있음.
  - 2011년 이후 지난 3년 동안 노동투입량 대비 산출량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어 ‘고투입-저산출 생산구조의 고착화’가 우려되는 상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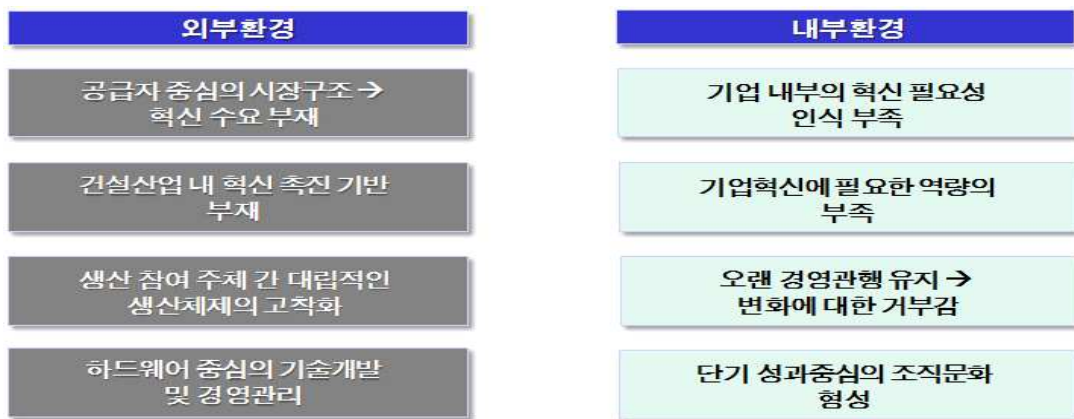
### ■ 건설기업 혁신의 대내·외 환경

- 건설기업 혁신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크게 세 가지 즉, 기술, 시장, 정책·제도로 분류할 수 있음.
  - 산업의 특성상 기술개발 비용이 과다한 데 비해 성과가 불확실한 점과 단기 성과 중심의 기술 수요 등으로 인해 혁신이 저해되고 있음.
  - 시장 측면에서는 국내 건설시장의 경쟁 심화와 점점 다양해지고 변화 속도가 빠른 건설 수요, 민간시장의 성장세 등으로 인하여 건설기업의 혁신을 자극하고 있으나, 지속

되어온 공급자 중심의 시장 구조와 지속적인 축소 등은 건설기업의 혁신을 저해하고 있음.

- 건설기업의 혁신 활동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정책 및 제도임. 정책 및 제도의 글로벌 스탠더드화가 진전됨에 따라 혁신 활동을 자극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획일적이고 경쟁 제한적인 발주 및 입·낙찰제도, 지나치게 세분화된 건설 법규 체계는 혁신 활동을 저해함.

<건설기업 혁신을 둘러싼 환경>



- 건설기업 내부적으로는 기업 내부 혁신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며, 기업 혁신에 필요한 제반 역량이 부족한 상황임. 또한, 오랫동안 유지해 온 경영 관행에 대한 신봉, 그리고 단기 성과를 지나치게 중시하는 조직 문화는 기업 혁신을 어렵게 하고 있음.

■ 건설기업 혁신의 기본 방향

- 최근 건설기업의 경영 환경에 따라 건설기업에 있어서는 비즈니스 모델 혁신과 기술 혁신을 동시에 추구하는 ‘토탈 그리고 오픈 이노베이션’이 필요함.
- 비즈니스 모델 혁신이란 건설기업이 제공하는 가치의 확대와 공급 체인 및 고객에 대한 혁신을 통해 새로운 사업 모델을 구축하는 혁신이며, 기술 혁신이란 상품과 서비스, 프로세스, 역량 관련 혁신을 추구하는 혁신임.
- 건설기업의 혁신은 성숙기에 진입하고 있는 건설산업의 특성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을 인식하고 건설기업 및 산업의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동참이 필요함.

김영덕(연구위원 · ydkim@cerik.re.kr)

## 2014년 글로벌 비즈니스 부패 인식 동향<sup>1)</sup>

- 오너의 리더십, 실행의 지속성, 반부패 의지가 핵심 -

### ■ 부패 방지에 수동적, 의도적 눈감기 의도 커

- 컨설팅 업체인 Control Risks사가 2014년에 실시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응답 기업 638개사 중 31.5%가 유럽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아시아/태평양(23.5%), 북미(21.3%), 중남미(14.1%), 중동(6.9%), 아프리카(4.4%) 순임.
  - 국가별 기업 비중은 미국과 영국 기업이 각각 107개사와 96개사로 전체의 31.8%를 차지했으며, 중국(51개사), 브라질(46개사) 및 멕시코(44개사) 등 신흥국 기업도 상당수 포함됨.
  - 업종별로는 전문 컨설팅업 23%, 파이낸스 15%, 제조 14%, 오일 및 가스 12%, 정보통신 11%, 건설 및 부동산 7%, 통신 6% 순임.
  - 설문 내용은 조직의 반부패 의지, 기업 컴플라이언스(기업윤리 자율실천 프로그램) 수준, 반부패 관련 내외부의 도전 과제로 구분
- 기업의 67.6%가 향후 2년 안에 조직 내에서 부패 관련 조사를 시행할 가능성이 매우 낮거나 다소 낮은 것으로 응답함으로써 여전히 수동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하지만 부정적 응답의 근거가 조직 내에서 부패 발생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가 아닌 태생적 무시 또는 의도적 눈감기 때문임.
  - \* 부패 관련 조사에 대해 부정적 응답을 한 67.6%의 기업들 중 56.6%가 지난 2년 동안 부패와 관련하여 조사를 시행하거나 외부 기관으로부터 받은 경험이 있음.
  - 조사를 경험한 기업들의 부패 사실 적발 방식은 내부 고발과 정기 감사가 각각 32.6%와 32.4%로 가장 높았으며 외부 고발을 통한 비율은 16.5%임.
- 응답 기업의 37.9%만이 부패 방지를 위한 투자를 지속할 계획과 예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해 상당수의 기업이 반부패를 위한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응답 기업의 44.7%는 부패 방지를 위한 현재의 프로그램 외에 추가적인 투자 계획을

1) 본고는 컨설팅 업체인 Control Risks사가 2014년 설문조사를 통해 글로벌 비즈니스에서의 부패에 대한 인식 및 대응 현황을 분석한 보고서의 일부를 요약함.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 하지만 브라질과 멕시코 등 중남미 지역의 기업들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구축과 개선을 위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는 추세임.
-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시행과 기업 내부의 반부패 인식 확대와 관련하여 조사 기업의 34.3%가 조직 구성원으로 하여금 부패 방지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시행의 중요성을 이해토록 하는 것이 가장 큰 애로 사항이라고 응답함.
- 다음으로 모든 국가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개발이 22.3%, 조직 전반에 걸친 반부패 제도에 대한 교육이 13.6%의 응답률을 기록함.
- 반면에 외부 환경적 측면에서는 국가별 법과 규칙의 보장 준수(26.8%), 협력업체, 파트너사 등 제3의 기관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 시행(14.7%), 부패가 만연한 시장으로의 진출(15%) 등이 주요 애로 사항으로 나타남.

## ■ 리더십과 책임감, 실행의 지속성, 반부패 의지가 가장 중요

-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등의 시행을 통한 효과적인 부패 방지를 위해서는 기업의 오너, 경영 책임자 등의 강력한 리더십과 책임감이 가장 중요한 요인임.
- 또한, 반부패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시행과 기업 구성원과 경영 책임자 등 관리자 그룹 간의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지속이 필요함.
- 세 번째 요인은 뇌물 등 부패 리스크가 높은 사업 환경이더라도 부패 유인에 자발적으로 저항하려는 의지임.
- 세계적으로 부패 방지를 위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구축과 시행의 지속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강조되고 있음.
- 최근 국내 건설산업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입찰 담합과 관련해서도 처벌 강화보다 시장 참여 기업들의 자발적인 규정 준수와 철저한 윤리 의식의 배양을 위한 노력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임.
- 특히, 입찰 담합을 관행으로 인지하고 있는 업계의 잘못된 집단 사고를 바로잡기 위한 공정한 경쟁과 윤리 경영 실천의 중요성을 건설산업 전반에 확산시켜야 할 것임.

손태홍(연구위원 · thsohn@cerik.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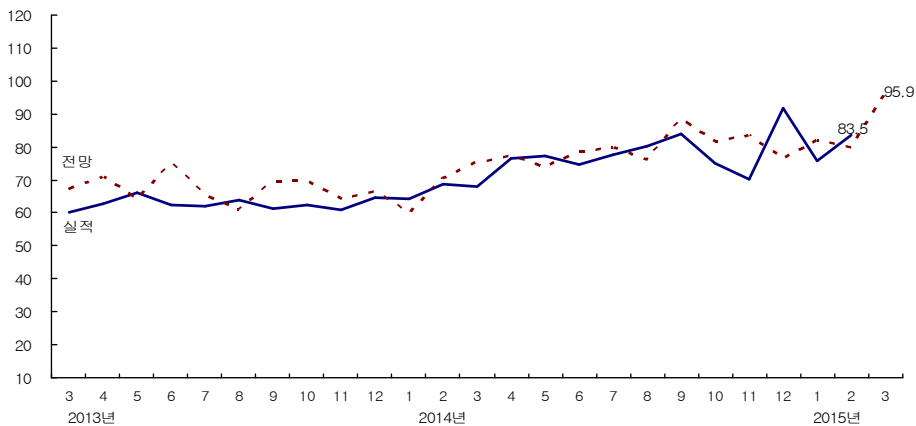
## 2월 CBSI, 전월 대비 7.7p 상승한 83.5

- 2월 실적으로는 2003년 2월 이후 12년 내 최고치 -

### ■ 주택 경기 회복, 계절적 요인, 통계적 반등 등의 복합 작용이 상승 요인

- 2015년 2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sup>1)</sup>는 전월 대비 7.7p 상승한 83.5를 기록함.
  - CBSI는 지난 1월에 연초 공사 발주 물량이 줄어드는 계절적 요인, 작년 12월 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한 데 따른 통계적 반락 등으로 전월비 15.9p 하락해 75.8을 기록했다.
  - 하지만 2월에는 전월비 7.7p 상승하면서 다시 80선을 회복함. CBSI가 2월에 80선을 상회한 것은 2003년 2월의 84.3 이후 12년 만에 처음임. 통상적으로 2월에는 혹한기 및 설 연휴로 인한 공사 발주 물량 감소로 CBSI가 저조한 경우가 많기 때문임.
  - 2010년 이후 80선을 지속적으로 하회했는데, 80선을 상회한 것은 새 경제팀의 경기부양책에 힘입은 작년 8월과 9월, 연말 공공 발주 물량이 증가한 작년 12월에 이어 4번째임.
  - 2월의 CBSI 상승은 통상 1월에 비해 공사 발주가 늘어나는 계절적 요인, 전월 CBSI의 큰 폭 하락에 따른 통계적 반등이 일부 영향을 미친 가운데, 무엇보다 최근 주택 경기의 건조한 회복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결과로 판단됨.
  - 상대적으로 주택 매출 비중이 높은 중견기업이 2월의 CBSI 상승을 주도한 것을 볼 때 최근 분양시장을 중심으로 한 주택 경기 회복이 건설기업 체감 경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추이>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1)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가 기준선인 100을 밑돌면 현재의 건설 경기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100을 넘으면 그 반대를 의미함.



- 다만, 지수 자체는 여전히 기준선(100.0)에 미치지 못해 건설기업 체감 경기가 완전히 개선되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움.

■ 대형기업 지수 전월과 동일, 중견 및 중소기업 지수 상승

- 기업 규모별로 경기실사지수를 살펴보면 대형기업 지수는 전월과 동일한 수치를 유지한 가운데, 중견 및 중소기업 지수가 상승했음.
  - 대형기업 지수는 전월과 동일한 100.0을 기록하여 3개월 연속으로 100선을 유지하였음. 대형기업 지수는 2014년 4월에 90선을 회복한 이후 기준선을 중심으로 소폭 등락을 반복하며 안정적인 체감 경기 상황을 나타내고 있음.
  - 중견기업 지수는 전월비 18.7p 상승한 90.6을 기록해 작년 12월 이후 2개월 만에 다시 90선을 회복했고, 2월 CBSI 상승을 주도했음.
  - 중소기업 지수는 전월비 4.1p 상승한 56.0을 기록하였음. 1월 대비 공공공사 발주 물량이 소폭 증가한 것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기업 규모별 CBSI 추이>

구분	2014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5년 1월	2월		3월 전망
											실적	전월 전망치	
종합	76.5	77.2	74.5	77.7	80.2	83.9	74.9	70.4	91.7	75.8	83.5	79.7	95.9
규모별	대형	92.3	92.9	92.3	100.0	92.3	108.3	92.3	100.0	100.0	100.0	92.3	107.7
	중견	75.9	74.1	73.3	75.8	83.3	80.0	78.8	70.0	97.0	71.9	90.6	100.0
	중소	58.8	62.5	55.1	53.8	62.5	59.6	50.0	45.1	76.0	51.9	56.0	77.6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3월 전망치, 2월 실적치 대비 12.4p 높은 95.9로 5년 5개월 만에 최고치

- 3월 CBSI 전망치는 2월 실적치 대비 12.4p 높은 95.9를 기록함.
  - 실적치 대비 익월 전망치가 높은 것은 건설기업들이 3월에는 건설경기 침체 수준이 2월보다 좀더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의미임.
  - 특히, 전망치 95.9는 2009년 10월 전망치 110.8 이후 5년 5개월 만에 최고치로서 건설기업들의 3월 경기에 대한 기대 수준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음.
  - 통상 3월에는 흑한기가 끝나고 발주 물량이 늘어나는 계절적 요인에 의해 CBSI가 상승하는 경우가 많아 3월에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으나, 상승폭은 실제 3월 발주 물량 수준, 주택 분양률 등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이홍일(연구위원 · hilee@cerik.re.kr) / 이승우(연구위원 · swoolee@cerik.re.kr)

■ 주요 정부 및 기타 공공, 유관기관 회의 참여 활동

일자	기관명	주요 내용
2. 25	국토교통부	• 국고국 주최, '종합심사제 전문가 회의'에 건설정책연구실 최민수 연구위원 참여 - 종합심사제 보완 방안 등 논의
2. 26	한국부동산연구원	• '제7차 부동산 포럼'에 건설경제연구실 김현아 실장 주제 발표자로 참여 - 주제 : 부동산 3법 개정에 따른 주택시장 변화 및 전망
2. 27	고용노동부	• 지역산업고용정책과 주최, '전자인력관리제 간담회'에 건설산업연구실 심규범 실장 참여 - 전자인력관리제 시범운영 방안에 대한 협의
	국토교통부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주최, '제49차 조정분과위원회'에 건설관리연구실 이영환 연구위원 참여 - 하자 분쟁 심사 등
3. 3	한국감정원	• '2015년도 전국 공동주택가격 심의회'에 건설경제연구실 김현아 실장 참여 - 2015년 1월 기준 공동주택가격(안) 적정성 심의 등
3. 5	국토교통부	• 기술정책과 주최, '일자리 창출 TF'에 건설정책연구실 김민형 실장 참여 - 건설기능 및 기술인력에 대한 일자리 창출 논의
3. 6	국토교통부	• 기술정책과 주최, 'CM제도 개선 2차 TF'에 건설관리연구실 김우영 실장 참여
	서울시	• 도시관리정책관실 주최, '서울시 용산 도시환경구역 현안 검토 3차 TF회의'에 건설경제연구실 두성규 연구위원 참여 - 용산 도시환경구역 관련 제반 사항 검토

■ 「민간투자사업 추진 일반과정」 2차 개설

- 기간 및 장소 : 2015. 4. 7(화)~9(목), 건설회관 9층 연수실
- 교육 대상 : 관련 실무자, 유관기관 및 단체 임직원
- 교육 과정 : 민간투자사업(BTO/BTL)에 대한 이해와 추진 전략, 사업성 분석 및 제도 등
- 문의 및 참조 : 기업지원팀 교육 담당(02-3441-0691, 0848), 홈페이지(www.cerik.re.kr)

■ 연구원 개원 20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

- 연구원은 오는 3. 19(목) 오후2시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미래 한국건설산업의 선택! 성장을 위한 부문별 전략'을 주제로 개원 20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함.
- 제1주제 : 2030년 건설시장의 미래 전망과 대응 전략
- 제2주제 : 첨단 건설 기술의 현장 적용 및 확산을 위한 기술 활용 전략
- 제3주제 : 미래 건설산업의 제도 환경 변화와 정책 방향
- 제4주제 : 건설 환경 변화에 맞춘 건설기업 혁신 전략

## 담합과 말죽거리 잔혹사

말죽거리 잔혹사라는 영화가 있었다. 30년 전쯤의 고등학교 생활을 그린 영화였는데 개봉 당시 극장에서 보면서 정말 저런 때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격세지감을 느꼈다. 사랑의 매로 포장된 교사 폭력, 명예와 우정을 지킨다는 명분의 학생 패싸움이 횡행하던 시절이다. 하기는 버스에서 담배 피우고 음주운전이 다반사이고 공중질서가 엉망이던 때이다. 불과 얼마 전의 일들인 그 사이 사회의 가치와 문화가 많이 바뀌어 지금은 상상조차 어려운 잔혹사로 비친다.

대형 건설업체들이 담합이라는 잘못을 저질러 사방에서 집중포화의 대상이 되고 있다. 법을 어겼으니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1조원에 달하는 과징금에 영업정지·손해배상·형사소송에 시달리는 건설업체들을 보면 일면 딱해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말죽거리 잔혹사이지만 과거에는 산업의 이익을 위해서, 또 근자에는 출혈경쟁을 피하기 위해 소위 ‘단합’을 해온 측면이 있다. 당시의 산업 풍토와 문화, 정부의 정책과 제도가 어우러진 결과가 담합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덜 투명한 건설산업의 특성상 시대 변화를 알아채지 못하고 타 산업보다 더 오래 그릇된 관례를 따르다가 된통 당하는 꼴이다.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느끼는 감정과 비슷하다. 당시에는 주위에서 많이들 그러했으니 별다른 나쁜 의도 없이 다운계약서를 쓰고 위장전입을 했으며 자기표절을 했을 것이다. 인사청문회도 없을 때이고 가치 기준도 다를 때의 일인데 어느 날 느닷없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공직자의 자격이 있느니 없느니 하면 누가 자신 있게 공직에 나서겠는가. 더 심각한 상황은 잘 달리는 선수를 뽑기보다 운동복 깨끗한 사람을 뽑게 돼 국가적으로 큰 손해를 보는 것이다.

건설에서도 마찬가지다. 건설산업의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황이 바뀌었으니 정상참작의 여지를 하소연하고 지난 경제발전 과정에서의 공로를 생각해 처벌을 경감해주자는 것이다. 건설산업이 이룩한 기반시설과 수많은 산업단지, 지난 시절 한국경제가 일궈낸 기적의 토대가 됐다. 오일 파동 때는 해외건설이 외화의 잣줄 역할을 하며 경제위기 극복에 한몫했다.

지난 50년의 공로를 생각해 시대의 빠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아둔함을 질책하되 업체를 죽이기보다 더 잘 뛰도록 격려의 채찍질이 필요하다. 미래를 향한 발전적인 해법을 찾아보면 한다. 건설업계는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경쟁력을 배양하고 정부는 일괄조사 및 처분, 입찰제도 개선을 통해 건설산업의 구조적 전환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얼마 전 입찰 담합 관련 정부 대책이 발표됐다. 깨끗하고 능력 있는 업체가 입찰에 성공하는 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해 건설업계와 정부가 함께 노력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서울경제, 2015. 2. 13>

김흥수(원장 · infra@cerik.re.kr)